

## 정세 이야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괴뢰를 쓸어버리자”고 말하면서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괴뢰’는 ‘꼭두각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하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북한의 젊은 장마당 세대가 한류에 빠져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전쟁 발언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영토 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극적 공세를 보이는 것은 당장 전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적극적 수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신설,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의 연례화, 미군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북한에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관리하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근래 김정은의 발언과 조치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대남 노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남한 내부의 이념적 분열과 남남갈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이 교회 안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갈등 해결 경험은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하나님! 북한의 지도층을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거짓된 선전, 선동을 멈추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역사 하옵소서.

하나님!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 남남갈등이 고조되지 않게 하시며, 그러한 갈등 가운데 교회가 편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분단과 남남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신념과 문화와 이념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깊이 연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의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목을 이루고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 통일선교기관의 특별기도 제목

매주 목요일 저녁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2024년 4월 4일(목)에 1,000차를 맞이합니다.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달려온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에 기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4월 13일(토)을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로 정하고 온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이는 성령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말씀 나눔

본문: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선적 배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을 머리로 삼아 새롭게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갈등과 다툼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화목의 중재자가 될 것을 당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에 편승하여 반목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에 편승하기보다는 그 갈등 가운데 참된 화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교회는 지도자 히틀러의 통치이념에 순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반목의 공모(complicity)자가 됩니다. 그 결과 독일교회는 전 세계를 고통 가운데 빠트린 전쟁 중에 세계 교회와도 반목하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의 교회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갈등을 매개하는 화해의 중재자가 아닌 반목의 공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영역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지

역, 계층, 신념으로 나누어진 채 갈등이 지속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갈등의 한편에서 스스로 ‘신앙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을 화목으로 전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17-20).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반목의 공범자에서 돌아서서 화목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온갖 언사로 적극적 공세를 펼칠 때도 그리스도인은 쉽게 남남갈등의 한쪽 편에 서기보다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깨어진 관계를 잇고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신앙과 남북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 있습니다. 무작정 세상과 거리를 두면 정세에 무지해집니다. 또 너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과 혼합될 위험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역사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 지도자의 공격적 언설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갈등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산재한 다툼을 화목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신학적 관점

미로슬라브 볼프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막 9:50)라는 말씀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어야 할 교회가... 최악의 경우에는 반목의 공범자가 된다”<sup>1)</sup>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공모하는 순간 소금의 맛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집단적 증오와 편협한 태도를 부추기는 당파적 정치의 영역까지”<sup>2)</sup> 들어가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반목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때 편견을 동원(mobilization of bias)하고 집단적 증오(collective hate)를 강화할 뿐입니다.

1) 미로슬라브 볼프,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40.

2) 위의 책, 54.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과 ‘문화에 대한 헌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교회는 특성의 문화를 기록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잔혹한 행위조차 정당화시킵니다. 그 결과 참된 기독교 신앙을 떠나 ‘기록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기독교 신앙의 용맹한 수호자라고 착각합니다.<sup>3)</sup>

기독교 신앙에 대한 참된 헌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신앙(faith)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God discloses Himself to human being)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의 이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만 온전히 반응하는 기록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소금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매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잃은 무력한 존재가 되거나 반목의 공범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요청은 바로 ‘비통한 회개’입니다.<sup>4)</sup>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화해의 기능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갈등과 반목을 강화하는 데 공모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특정 문화와 이념의 포로가 되어 맹목적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sup>5)</sup>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절대시하는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잘못된 자기 의와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볼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화로부터 거리두기(distancing)’와 ‘문화에 소속되기(belonging)’ 사이에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sup>6)</sup>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은 충성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주어진 문화와 그 신들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sup>7)</sup>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나 이념입니까?

---

3) 위의 책, 55.

4) 위의 책, 55.

5) 위의 책, 55.

6) 위의 책, 55.

7) 위의 책, 59.